

관중 1년새 147% 증가...광주 역대 최다승점 우승 '위업'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정 '11대 뉴스'

코로나19 시대를 딛고 2022시즌 K리그 관중석이 다시 활짝 열렸다. 뜨거운 팬들의 함성속 K리그 1 울산 현대와 K리그2 광주FC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2022 시즌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한 '11대 뉴스'로 돌아본다.

◇광주 K리그2 '역대 최다승점' 우승 ... 1년 만에 K리그1 복귀

광주가 25승 11무 4패(승점 86)로 K리그2 정상 을 밟았다. K리그2 최다승·최다승점을 갈아치운 광주는 1년 만에 K리그1으로 복귀한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우승을 이끈 이정호 감독이 사령탑 첫째 K리그2 감독상을 받았고, '주장' 안영규는 K리그2 MVP에 등극했다.

◇울산 17년 만에 K리그1 우승·전북은 FA컵 우승 3년 연속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던 울산이 2005년 이후 17년 만에 1996·2005년에 이어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홍명보 감독과 '주장' 이창용이 각각 K리그1 감독상과 MVP를 수상했다. 전북은 6연패를 이루지 못했지만 5번째 FA컵 을 차지, 수원과 최다승 타이틀을 이뤘다.

◇승강플레이오프 '1+2' 확대...대전 7년만에 승격 승강PO가 확대되면서 K리그1 11위 김천상무, K리그2 2위 대전이 '운명의 승부'를 벌였고, 대전 이 7년 만에 승격을 이뤘다. K리그1 10위 수원 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인 안양과 대결을 벌였고, 잔류를 확정했다.

◇'17골' K리그1 득점왕 조규성, 2년 연속 국내 선수 득점왕 전북 조규성이 17골로 K리그1 최다득점왕에 올

K리그1 울산 17년만에 우승컵 이승우·김영권 등 국내리그 복귀 승강 PO 확대로 살벌한 생존경쟁 양현준·오현규 등 신성 맹활약

랐다. 지난해 1위 주민규(제주·37경기)와 나란히 17골을 기록했지만, 31경기에 나온 조규성이 득점 왕이 됐다. 2014 김신욱·2015 정조국에 이어 7년 만에 2년 연속 국내 선수가 득점 1위가 됐다.

◇수원FC 이승우 열풍...김영권(울산), 이명주(인천) 등 해외파 출신 활약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이승우가 수원FC 유니폼 을 입고 K리그에 데뷔했다. 뛰어난 개인기로 14골 3도움을 올린 이승우는 재치있는 세리머니와 팬 서 비스로도 사랑받았다. J리그에서 활약한 김영권도 K리그에 데뷔했고, 알 와흐다(UAE)에서 뛰던 이명주는 2년 만에 복귀했다.

◇양현준(강원), 오현규(수원), 강성진(서울), 고영준(포항) 등 신예 스타 탄생

양현준은 8골 4도움으로 강원의 파이널 A 진출 에 기여했고, 13골 3도움을 기록한 오현규는 안양 과의 승강플레이오프에서 팀 잔류를 확정하는 결승 골을 터뜨렸다. 강성진은 1골 4도움, 고영준은 6골 4도움을 만들었다.

◇성황리에 끝난 '쿠판플레이 시리즈' 팀 K리그 vs 토트넘

연맹이 파트너십 일환으로 7월 13일 '쿠판플레이 시리즈' 팀 K리그 vs 토트넘 친선전을 열었다.



광주FC가 경남FC와의 홈 폐막전에서 4-0 승리를 장식한 뒤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예매 시작 25분 만에 티켓이 매진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펼쳐진 이 경기에는 이승우, 백승호, 조현우, 조규성, 김진수, 권창훈 등 K리그 스타가 총출 동했다.

◇활짝 열린 관중석, 코로나19시대 딛고 일상으로의 복귀

무관중과 제한적 유관중을 오갔던 K리그의 관중 석이 3년 만에 활짝 열렸다. K리그1 평균관중은 4820명으로 2021시즌 1949명 대비 147% 증가했 다. 38라운드 울산-제주전에서는 2만3817명이 찾 아 코로나 이후 최다 관중이 기록됐다.

◇'12년 만에 공청회' 외국인 선수 제도 개정 연맹이 '승강제 공청회' 이후 12년 만에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두 차례 자리를 마련한 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K리그 1 구단이 외국인 선수를 최대 5+1명까지 보유하고, 최대 3+1명까지 동시 출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김포 창단' K리그2 참가...청주-천안 가임 승인, 25구단 체제로

김포가 K리그2에 참가하면서 23개 구단 체제로 운영됐다. 김포의 창단 첫 해 성적은 10승 11무 19

패(승점 41). 또 청주, 천안의 회원 가입 승인으로 2023시즌부터는 K리그 사상 가장 많은 25개 구단 체제가 운영된다.

◇K리그 공식 서체 사용, 유니폼 등 번호와 선수 명 통일

K리그 신규 브랜드 아이덴티티 'DYNAMIC PITCH'를 기반으로 개발된 'K리그 공식 서체'를 공개했던 연맹이 K리그 전 구단 유니폼 등 번호와 선수명을 K리그 공식 서체로 통일해 시인성을 높 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체육회장 출마 후보자 윤곽

광주 4명 임원 사직·등록의사 표명...전남은 3명 출마 표명

다음 달 치러지는 광주시, 전남도체육회장 선거 에 출마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광주시,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15일 광주에서는 홍성길 광주배드민턴협회장이 후보자등록의사 표명서를 접수했다.

박찬모 광주시육상연맹회장, 전갑수 광주시배구 협회장, 최갑열 광산구체육회장(가나다운)은 사직 서를 시체육회에 제출,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광주체육회장 선거에는 모두 4명의 출마가 예상된다.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했거나 체육단체 임원을 사퇴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우영기술단건축사사무소 회장, 조선 대학교 ROTC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전 회장은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백양실업 대표로 활동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삼일건설 회장,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장을 맡고 있 다. 홍 회장은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이자.

전남에서는 송진호 목포시체육회장, 윤보선 전 남체육회 부회장,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 등 3명이

후보자등록의사 표명서를 접수했다.

송 회장은 전남육상연맹회장, 박지원 전 국회의 원 보좌관을 지냈다. 윤 부회장은 전남스키협회장 을 지냈으며 현재 유림전기 대표다. 장 의원은 영광 군의회 의원과 영광군생활체육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회장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체육단체 비상 임 임원이 그 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체육단체 임원(비상임, 상임 포함) 중 11월 15일까지 사직한 사람, 또는 체육 단체 임원이 아닌 사람(체육단체와 무관한 사람) 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12월 4-5일까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 록할 수 있다. 시·도체육회장 선거는 다음달 15일 실시 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 청소년 클럽 대항전 3년 만에 재개

시체육회 19~20일 개최...축구·농구 등 1000여 명 출전

광주시체육회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청 소년 클럽대항전을 3년 만에 다시 개최한다.

시체육회는 오는 19~20일 보라매 축구공원과 광주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022 청소년 생활 체육 클럽대항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축구협 회, 광주시농구협회가 주관한다. 청소년의 생활체 육 참여를 높이고 건강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그동안 열렸으나 최근 2년 동안 중단됐었 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축구 64팀(중등부 32팀, 고등부 32팀), 농구 32팀(중등부 16팀, 고등부 16팀) 등 1000여 명이 출전한다.

김광아 시체육회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와 학업으로 인해 지친 청소년들에게 활 기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 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 년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 다"고 말했다.

박우혁 태권도 세계선수권 우승 한국 23년만에 80kg급 '값진 금'

태권도 중량급 기대주 박우혁(22·한국체대)이 우리나라의 취약 체급인 남자 80kg급에서 값진 세 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수확했다.

박우혁은 15일(이하 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 하라의 센트로 아쿠아티코에서 열린 2022 세계태 권도연맹(WT) 세계선수권대회 첫날 남자 80kg 급 결승에서 온 신타도 아르테체(스페인)를 라운 드 점수 2-0(2-0 8-4)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리나라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 80kg급 (웰터급)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1999년 캐나다 에드먼턴 대회 장종오(현 용인대 교수) 이후 23년 만이다.

박우혁은 결승에서 상대적으로 신장은 작지만, 순간적으로 위협적인 발차기를 구사하는 신타도 아르테체를 상대로 오른 주먹과 머리 공격으로 결 정타를 날리며 정상을 썼다. /연합뉴스



박우혁(22·한국체대)이 15일(한국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2022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선수권대회 첫날 남자 80kg급 결승에서 온 신타도 아르테체(스페인)를 상대로 경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혈전증 이겨낸 코다, 여자골프 세계 1위에

한국 선수들 5년 만에 3위 밖으로

혈전증을 이겨내고 부활한 넬리 코다(미국)가 여 자골프 세계 1위를 되찾았다.

코다는 14일(현지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 랭킹에서 지난해 4위보다 3계단이 오른 1위로 상 승했다.

코다가 여자골프 세계 1위가 된 것은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1위였던 아타미 티피꾼(태국)은 2주 만에 1위 자리를 코다에게 내주고 2위로 내려갔다.

코다는 올해 초 혈전증으로 잠시 투어활동을 중 단하고 치료를 받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14일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펠리 컨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1위 자리를 탈환했다.

2위였던 고진영(27)은 4위로 밀렸다.

3위는 교포 선수 리디아 고(뉴질랜드)다.

한국 선수들이 여자골프 세계 랭킹 3위 내에 한 명도 들지 못한 것은 2017년 3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2017년 3월 13일 자 순위에서 리디아 고가 1 위, 에리아 쭈타누간(태국)이 2위였고 3위는 평산 산(중국)이었다. 당시 한국 선수 최고 순위는 4위 전인지(28)였다.

이후로는 한국 선수 최소 1명이 세계 랭킹 3위 내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번 순위에서 고진영의 4 위가 최고 순위가 됐다.

한국 선수들은 최근 LPGA 투어 대회에서 15 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선수들이 LPGA 투어에서 이렇게 오래 우 승하지 못한 것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 지 17개 대회 연속 이후 이번이 약 8년여만이다.

이번 주 랭킹에서 10위 내 한국 선수는 고진영 외에 8위 전인지, 9위 김효주(27)까지 세 명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2시즌 삼강왕에 오른 박민지(24)는 18위에서 12위로 경 승 뒤졌다.

KLPGA 투어에서 2년 연속 6승을 거두고, 상 금왕도 2연패 한 박민지의 종전 개인 최고 랭킹은 14위였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데시벨
2관	데시벨
3관	자백, 홀: 600미터
4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5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극장판 핑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덕막학교
6관	동감
9관	동감
7관 세네거를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첫번째 아이
8관 세네거를	한산 리릭스, 킹덤2: 아득한 대지로,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핑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덕막학교, 내 친한 친구의 아침식사

GAC기회 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뷔에르 앙상블

일시: 2022. 11. 21.(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공연 영아오페라 시리즈 1 피노키오

일시: 2022. 12. 2.(금) 19:30

2022. 12. 3.(토) 15:00 / 19:00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062-613-8246